

1. 간염의 종류

간염 바이러스에는 A, B, C, D, E 형까지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A형 간염은 전부 급성 간염입니다. 어린애들이 A형 간염에 걸리면 밥을 잘 먹지 않고 보채면서, 눈과 피부가 노란색으로 되는 황달이 생기거나, 가벼울 때는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도 이 A형 간염에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릴때 A형 간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몸안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 막아내는 물질인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대부분 음식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A형 간염은 급성으로 앓아도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한 번 거리고 나면 평생동안 다시 걸리지 않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B형 간염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간염 환자는 대부분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전 인구의 약 5% 정도는 몸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B형 간염은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피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즉,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의 피를 수혈받는다든지, 환자의 피가 묻어있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사를 맞거나, 의사나 간호사, 병리기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환자의 피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주사바늘에 찔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침이나 소변, 여자 외 질 분비물, 남자의 정액, 어머니의 젖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B형 간염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간염을 옮겨 받는 것을 수평감염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감염방식이 수직감염입니다.

산모가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태어나 아기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수직감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이 많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서 B형 간염을 옮겨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대부분 보균자 상태로 되어서 지나게 되지만, 일부는 어른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C형 간염의 바이러스는 발견된지 4~5년 정도 되었고, 그전에는 A형도 B형도 아니라는 뜻의 '비 A 비 B형 간염'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C형 간염은 급성으로

만성간염

급성 간염은 안정을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현재까지는 간염 바이러스를 바로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간장약이 있지만 주로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질을 많이 먹거나 지방분이 하나도 없는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때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태어난 때에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방 접종을 3회 실시하면 70~90% 정도에서는 항체가 생기지만 나머지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몇번 주사를 더

수치는 간염의 정도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즉 간염이 계속 진행중일 때에도 이 GOT, GPT 치가 정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검사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B형 간염이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항원과 항체가 나타납니다. B형 간염 S항원이 나타나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e항원이 나타나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활발히 활동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S항원에 의한 항체는 과거에 B형 간염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나,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 나타납니다. e항원에 대한 항체가 피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점점 그수가 적어지고 있



최용환 (경북의대 교수)

조급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병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간에 나쁜 약이나 음식물을 피하고, 특히 술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장과 학교를 쉬면서 장기간 동안 가만히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나친 과로만 피하면 됩니다.

이 만성 간염에서도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간장약이란 것은 모두가 간장보호제이지 간염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페론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사용해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 반수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간염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음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단백 식사나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고 음식만 많이 먹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채식이나 녹즙이 특별한 효과가 있거나, 돼지고기, 닭고기가 특별히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B형의 5~10% C형간염의 40%에서 진행 술, 과로, 비만피하고 정기검진 받아야 GOT, GPT치가 정확치 않을수도 있어

나타낼때는 그 증상이 B형 간염보다 가벼우나 만성 간염으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예방 약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B형 간염은 점점 줄고, C형 간염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D형 간염은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며, B형 간염의 증상을 더 나빠지게 합니다.

E형 간염은 음식물로 옮겨지는데 인도나 방글라데시와 같이 위생상태가 나쁜 나라에 많고, 증상은 A형 간염과 비슷하며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간염의 치료와 예방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3. 만성 간염

급성 간염은 대부분 낫고 나면 간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B형 간염의 약 5~10% 정도에서, C형 간염의 약 40% 정도에서 만성 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에는 활동성 간염과 활동성이 아닌 만성 간염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간조직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 있을 때에도 피 속의 GOT, GPT 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을 나타냅니다.

4. 만성 간염환자의 생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으면서도 간염은 없는 것을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균자는 건강인과 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술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균자도 만성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이점을 기억해야 하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균자의 상태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동안 보균 상태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너무

- 식이조절, 체질개선의 필수건강 보조식품 -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기업 '동해다시마'

다시마 효소 精



다시마 효소精 은 다시마특유의 영양소가 결집된 특수부분만을 엄선, 채취 효소화하여 정제로 제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시마 효소精은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45여종의 미네랄과 특수성분인 알긴산 섬유질 및 고알카리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성인병 식이조절을 위한 필수 자연건강식품입니다.

(주) 동해다시마
서울·강남구 역삼동 628-1 (중원B/D2층)
자료청구처 및 상담실(02)558-2876~8

다시마 효소精은
다이어트, 체질개선, 노화방지, 면역력 증진, 영양 보충에
효과적입니다.